



2023
북한회복을 위한
구역공과

프로젝트

학습자용 |



2023 북한 회복을 위한 속회 / 구역공과

공과안내
공과의 주제 해설

- 1과 예수 안에서 하나
 - 2과 갈등을 넘어서 부흥으로
 - 3과 하나님 아버지 마음
 - 4과 화해
-

집필진 소개

공과안내

*** 공과는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공과마다 같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과의 제목과 말씀은 그 주제에 맞추어 생각하고 나눌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관련 찬양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도입은 그 주제를 생각할 수 있는 질문과 간단한 나눔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삶의 나눔으로 말씀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생각이 삶의 자리에서 결단으로 이어지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오픈마인드 : 간단한 활동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찬양 : 주제와 관련된 찬양을 부르며 마음을 엽니다.

삶 속으로 : 말씀과 주제를 통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지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기 : 한반도의 복음통일을 위해 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 현재의 모습을 “갈등공화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남북문제, 대일/대미 외교 문제, 그뿐만 아니라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다른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서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도 갈등으로 인한 상처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갈등은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드는 것 이외에도 사회의 약자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국민적인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만들고 있으며 선진화와 남북 간 화해와 통일의 길에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사회는 이러한 갈등을 넘어 새로운 한반도 공동체로 거듭나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때이다. 그래서 이번 공과에서는 복음을 통한 통일 공감대의 확산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5-7절) 말씀을 가지고 “포용”이라는 가치를 담고자 한다. 포용은 하나님의 성육신에서 보여주신 비움과 십자가의 사랑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가치이고, 현재 다문화, 다민족화의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본 공과는 30대 목회자, 북한 선교 선교사, 탈북민 목회자 등이 진단하는 사회의 갈등과 그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았다. 공과의 주제를 “품다”로 정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을 품을 수 있는 참 신앙의 길을 찾고자 한다.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포용하는 사람들이다. 분단된 한반도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의 목표 또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단의 아픈 상황을 모르는 척, 또는 나와 상황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평화 통일을 위해 각 자리에서 기도해야 한다. ‘포용’이란 주제로 4주차 공과를 진행할 때 주님 주시는 참 평화를 깊이 묵상하게 된다. 그리고 분단과 전쟁의 아픔의 역사가 있는 6월이지만 본 책자를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포용하고, 깊은 분단의 아픔을 가진 북한 동포 또한 포용할 수 있는 회복의 달로 변화되길 기도한다.

1과

예수 안에서 하나



오늘의 찬양

인류는 하나 되게 (찬송가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 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편당심 일으키며 차별 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려다 대화를 막으려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 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가사 해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 곡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십자가로 하나 된 가족임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분단된 한반도를 생각하며 다시 온전히 하나 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 공과를 여는 질문

한국에 온 탈북민은 많은 사연만큼이나 깊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지진도 아니었는데 그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북민은 가족과 친구를 잃은 고통을 압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만난 이웃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보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도, 함께 살아간다는 것도 막막해 보이는 통일만큼이나 멀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장벽은 한반도의 허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탈북민과 탈북민, 남쪽 사람과 남쪽 사람 사이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세워둔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다시 서로와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 본문 나누기

[갈라디아서 3장 26-29절]

- 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 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 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 본문 묵상하기

1. 갈라디아 성도들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26절)
2. 가족으로 부르심 받았어도 어떤 차별이나 구분이 있을까요? (28절)
3. 갈라디아 성도들은 무엇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었나요? (27절)

말씀속으로

한반도는 오랜 시간 크고 강한 주변국에 둘러싸여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 많은 상처들은 그대로 깊은 갈등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에도 70년 이상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탈북하여 한국에 온 북한주민은 여기서 살아보니 갈등의 깊이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통일 후 동독으로 이사하여 사는 서독 출신의 어느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 후에야 분단을 실감했다.’ 함께 살아보니 느낄 수 있습니다. 언어적, 문화적인 차이가 큼니다. 한 탈북자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넘어 거부하는 것 같아 북한 출신인 것을 숨기려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 와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탈북민이 같은 학부모 가정과 가깝게 지내다 탈북민이라고 말했더니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는 여러 도시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소아시아의 중북부 지역에 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소아시아 중남부 관할 구역에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미국의 정치와도 연결된 한반도의 갈등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갈라디아의 여러 도시에서 모인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특징들이 그대로 갈등과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러 문제로 인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화가 진짜라고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도덕성을 자랑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늘 시민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그 비용과 자격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지불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는 자격과 권세를 예수님이 선물해주셨다고 전합니다. 어떤 신분, 어떤 문화에서 살아왔던지 성도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6절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자격은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진실을 전합니다.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탈북민들의 위협을 감수한 탈북의 과정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죽음과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태국이나 제3국을 찾아 떠나는 이유는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대사관을 통해 탈북 정보가 확인되면 유엔은 탈북민들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를 위해 탈북민들은 목숨을 걸고 중국을 탈출합니다. 그들은 태국에 가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북송되지 않고 100%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구원받게 된다’라는 정보에 대한 신뢰, 이것을 ‘믿음’이라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은혜가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요 1:12). 한국 대사관이 수속을 진행하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주십니다(마 10:32).

예수님은 자신께 나아오는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십니다. 그 모든 절차와 승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까지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하늘 여권을 발행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준 유엔에 대한 믿음도 큰 기쁨이지만,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해주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구원정책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까요? 27절 말씀에 보니 세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확신을 언제 가질까요? 메콩강을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고전 10:2). 메콩강을 지나 태국에 도착한 탈북민은 이민국에 있는지 안전 가옥에 있는지 국제사회가 인정해 준 난민입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하늘나라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태국에 머물다가 한국에 온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됩니다. 28절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북한 어디에서 어떤 신분으로 태어났든 상관없이 한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회사 사장으로 살든, 일용직 노동자로 살든, 남자로 살든, 여자로 살든,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분의 나라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 서로를 섬기며, 서로와 화목하며, 서로와 함께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게 됩니다. 영원히 함께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시며 살게 하시니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삶 속으로

- 1) 남과 북이 교회로 모일 때 예상되는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 2) 남과 북이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 3) 서로의 다른 면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오늘 배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
번 주간 동안 매일 한 번씩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들고 더 기도
합니다.

01

우리의 죽음과 고통을 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서로 다른 고생
과 아픔을 각각 가졌음을 인정하고 이해하게 해주세요.

02

서로의 고통과 상처를 품어주며 그와 같은 주변 이들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
나님께서 남과 북 모두에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남과
북이 다투더라도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서로를 위해, 자신을 위해 다시금
하늘 사랑을 구하도록 도와주세요.

03

서로의 고통을 다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예수 사랑 잘 배우게 해주세요. 남과
북을 화목하게 해주실 예수님 사랑을 붙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
해 남북 모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울증이 심한 탈북민,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남한성도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함께 예수 안에서 서로를 통
해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해주세요.

2과

갈등을 넘어서 부흥으로



오늘의 찬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롭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리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가사 해설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는 아일랜드의 스크라이븐(1819-1886)이 작사하였습니다. 그는 결혼을 앞두고 그의 약혼녀가 불의의 사고로 죽는 아픈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 후 캐나다로 이주하여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시를 벗삼아 살았습니다. 이 찬송시는 1855년 고향 아일랜드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을 앓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 쓴 시입니다. 곡은 미국의 콘버스(1832-1918)가 작곡하였습니다.

공과를 여는 질문

갈등극복에 관하여 Marvin Dunnette의 5가지 방법을 보면 회피, 조화, 대결, 타협, 협동을 갈등극복의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5가지 요소 중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극복하는 경우가 많나요?



- 1) 회피: 문제를 무시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갈등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면서 저절로 해소되길 기대합니다.
- 2) 조화: 일부 팀원들이 합의를 위해 자신의 입장을 포기한다. 팀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잃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3) 대결: 공격적으로 행동하면서 이기려고 노력한다. 이때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할 때 사용해야 효과적입니다.
- 4) 타협: 갈등 당사자들의 목표에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는 결정을 합니다.
- 5) 협동: 갈등 당사자들이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주로 사용한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창조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상호 간의 협력과 존중이 중요합니다.

본문 나누기

[사도행전 6장 1-7절]

- 1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 2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 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 4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본문 묵상하기

1. 초대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1~2절)
2. 접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절)
3.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3~4절)
4. 공동체의 리더가 세워지고 리더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어떤 일이 생겼나요? (5~7절)

말씀속으로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대치상태에 놓여있고 북한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낙담하고 실망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땅에 ‘고난의 행군’(1995~2000)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수많은 북한사람이 홍해를 건너듯이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게 하셨고, 이들에게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더러는 북한 땅에 피를 뿌리는 순교자로, 더러는 북한 지하 성도들로, 또는 대한민국에 들어와 신앙을 가진 성도로 다음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는 3만 1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일 예행연습을 위해 미리 탈북민들을 대한민국교회에 보내셨습니다.

한국교회는 2천 5백만 명의 북한을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 통일, 먼저 온

탈북민들을 교회공동체 안에서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할 비전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40여 개의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공동체들이 세워졌습니다. 또 앞으로 많이 세워질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꿈꾸고 세워졌지만 분단후 70여 년의 공백을 한꺼번에 메꿀 수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7절의 본문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더욱 부흥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웠던 초대교회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갈등을 품는 공동체로 더욱 부흥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델이기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루살렘교회에 구제와 관련되어서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었고, 6장에서는 내부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교회공동체를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외부에서 핍박을 하다가 그게 안되니까 내부에서 탐심의 문제를 일으키려 하고, 그것이 진정되니까 또 핍박을 하고, 이제는 내부의 갈등을 부추기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하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구제활동을 할 때 본의 아니게 혜택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섭섭함과 불만과 비판의 소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사람들이 모두 헬라파여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초대 교회 내에 여러 그룹들이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특히 히브리파와 헬라파사이에 약간의 긴장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의 실권은 아무래도 주로 히브리파가 잡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어로 또는 아람어를 주로 하는 정통유대인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실권을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파는 이방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히브리파와 구분되게 헬라파라는 명칭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고향이 이스라엘의 본토가 아니라 이방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재패했는데 이들이 제국내 여러군데에 퍼져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대개 예루살렘에 연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유월절이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때마침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 후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찢려 결단하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고 교회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외국에서 왔지만 예루살렘에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탈북민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공동체 내에 들어온 왔지만 여러 가지 갈등에 부딪힙니다. 함께 생활해보니 문화가 다르고, 언어도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떤 단어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남한사람들이 아무래도 주도권을 훨씬 더 많이 잡고 있으니 북한사람들을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또 북한사람들은 고집이 세니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자신들을 알지 못한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공동체의 구제형태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제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매일 식사 대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소를 차려놓고 식사를 제공하는 형태였을 것입니다.

개역한글에는 ‘공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접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접대’, 공동번역에는 ‘식량배급’, 새번역에는 ‘음식을 베푸는 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말로 ‘접대’로 번역된 단어가 원문에는 ‘돈을 세기 위한 계산대’나 ‘식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식탁에서 구제하는 일과 돈을 관리하는 일까지 겸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만 중요하고, 구제하는 일과 돈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사명의 우선순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도 함께 하다가 정작 중요한 말씀을 제쳐두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남북공동체 안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들 중 하나가 탈북민들을 보는 시선입니다. 여전히 탈북민들은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이기에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구제를 하고 열심히 섬겼지만 이들에게 정작 하여야 할 말씀으로 이들을 세우지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구제금을 받고 도움을 받고 나면 교회공동체를 떠나는 탈북민들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떠난다고 말합니다. 매일 정신없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들에게 줄 후원금을 정리하고 결산하고 통계하고, 새로운 구제대상자를 선정하고 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본래 해야 할 일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구제에 치우쳤을 것 같습니다. 접대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봅니다. 진정한 접대는 공동체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요? 남과 북의 구성원들이 서로가 서로를 접대하고 말씀과 기도로 섬길 때만이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지며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공동체는 모든 성도들을 문제해결에 참여시킵니다. 모든 제자들을 부른 사도들은 자신들에게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 한겁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사도들의 반응은 짜증을 내거나 자기를 방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문제의 핵심을 보고 자기들의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7명을 세우는데 이것은 팀 사역, 즉 함께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기서 뽑힌 7명은 사도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 즉 성도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지도자를 뽑도록 합니다.

여기서 제자와 사도 외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인 7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집사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집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칭찬받는 사람 일꾼”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을 세운 이유는 함께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더 높은지 낮은지를 따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위에 있고, 7명은 그 밑이고, 나머지 성도들은 더 밑이라고 계급을 구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

나라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뽑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실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많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차고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로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혼자 지혜를 가진 게 아니라 관계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도 지혜 충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분별력 있고, 상황을 잘 판단할 줄 알고,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의견만 내 세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남북공동체는 서로의 의견을 잘 소통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잠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를 많이 발견하고 탁탁 지적하는 사람은 오히려 주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존경받기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칭찬받는 사람이 모형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지요. 정말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며 사역할 때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칭찬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리더들을 바로 공동체 사람들 가운데서 뽑았습니다. 리더는 우리 가운데 자라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의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한 리더들을 키워내고 그 리더들에게 적절한 일을 맡겨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절 6절을 살펴보니 온 무리가 우선 이 일에 대해 너무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공유하면서 어려움도 있지만 서로 잘 수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뽑은 사람들이 모두 다 헬라파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콜라 였습니

다. 사실 헬라파인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보통이면 4:3으로 하자, 히브리파도 좀 섞어 넣고, 헬라파 너희도 좀 들어오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전원 헬라파로 선정하였습니다. 흔히 일곱집사라고 부르는 이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의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섭섭함을 많이 여겼던 탈북민들을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탈북민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인색한 것 같습니다. 탈북민은 세워주고 책임이 주어졌을 때 더 실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숙했으며, 자신의 이익을 따져서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가장 유익한 길이 뭔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출된 결과가 놀랍습니다.

7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졌습니다.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져서, 진짜 예수 믿고 공동체로 들어오는 이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세상이 행복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를 위협하던 자들인 제사장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 속으로

01

사도행전 6장에서 보니 외부에서 주는 위협에 교회공동체는 합심하여 위기를 잘 이겨냈고 오히려 강성했음을 봅니다. 하지만 사탄은 외부의 공격에도 끄떡 없는 교회를 보면서 내부에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남북공동체 안에서 이런 갈등의 경험이 있었는지 나눠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내부의 갈등을 이겨냈는지 귀한 은혜가 있다면 그 경험을 나눠봅시다.

02

위기를 기회로 바꾼 초대예루살렘교회는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의견을 제시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전원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남북공동체 안에 전원 북한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진다면 어떠할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있게 나눠봅시다.

03

남북공동체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북공동체 안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지 나눠봅시다.



함께 기도하기

오늘 배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번 주간 동안 매일 한 번씩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들고 더 기도합니다.

01

예루살렘교회는 외부에서 주는 위협에도 넘어지지 않고 교회공동체는 합심하여 위기를 잘 이겨냈고 오히려 강성했음을 봅니다. 하지만 사탄은 외부의 공격에 끄덕하지 않으니 또 다시 내부를 공격하고 어려움과 분란을 일으킴을 보게 됩니다. 남북공동체가 연합하여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런 훈련을 잘 견딘 남북공동체가 통일 후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무너진 제단을 세우고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남북공동체 되게 하소서.

02

위기를 기회로 바꾼 초대 예루살렘교회는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의견을 제시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전원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온 3만 4천여명을 주님 붙여주셨사오니 이들을 붙쌍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는 교회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훈련과 성품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탈북민 출신의 평신도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에 함께 연합하고 세우게 하시옵소서.

03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3만 4천여명 중 탈북민목회자들과 목회자후보생들이 있습니다. 전국신학교에서 철저히 훈련받고 준비되는 신학생들과 현재 눈물로 탈북민 한명을 붙들고 목회를 감당하며, 또 남북공동체를 형성하여 남과 북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 나라를 준비하는 공동체를 들어서 저 북한 땅을 회복하고 이 한반도에 통일을 허락하는데 기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과

하나님 아버지 마음



오늘의 찬양

하나님 아버지 마음(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 공과를 여는 질문

영상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함께 본 영상은 체코에서 촬영한 'MOST(모스트)'라는 단편영화를 요약한 것입니다. 영화에서 하이라이트는 어떤 부분일까요? 사랑하는 아들과 기차 안에 수많은 사람 중 한쪽 만을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 아들을 희생하고 오열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

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기차 안의 사람들과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기차 안의 사람들은 너무 태연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목숨을 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인 MOST는 영어로 “대부분”, “대다수”라는 뜻이지만 체코어로는 “다리”라는 뜻을 가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리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울부짖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 본문 나누기

[누가복음 15장 11-32절]

- 11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 12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 13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 14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 16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군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 21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 25 딸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왔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 26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대
- 27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 28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 29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 30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 31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 32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 본문 묵상하기

- 1)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11-12절)
- 2)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17-21절)
- 3) 아버지는 왜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할까요?(22-24절)

◇◇ 말씀속으로

복음통일의 비전은 서로 다른 인성이 형성된 남북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포용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세워진 통일한국은 세계열방을 포용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형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 가운데 자신의 몫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 받았다가 아니라 그 당시 시선으로 본다면 아버지께 용서 받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지른 상황이었습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은 온갖 세상의 고난을 몸소 겪습니다. 끝내 그는 양식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이미 멀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집을 나갈 때도 아들이었고, 방탕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포커스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후의 상황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내게 대못을 박은 아들인데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나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기 전부터 먼저 나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자마자 달려갑니다. 두 팔을 벌립니다. 안아줍니다. 오랜 고생 속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은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안고 있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끌어안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가슴 찡한 장면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돌아온 탕자와 형제인 첫째 아들,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누가복음 15장 28-29절]

28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한반도의 북쪽에서 자유를 찾아, 돌아오신 북한이탈주민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거짓된 아버지를 떠나 진정한 아버지를 만나러 온 우리의 형제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인데, 감격인데 첫째 아들은 그렇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노합니다. 묘한 분노가 치밀어 옵니다. 그가 집중한 것은 뭘니까? 누가복음 15:28-29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게는', '내가', '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내 것, 내 것 외치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아버지가 보시는 곳 함께 보고, 아버지가 뛰어나가시면 같이 뛰어가고 아버지가 안아 주시면 나도 안고 아버지가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 우리도 돌아온 형제를 기뻐하면서 춤을 추자고요. 틀림과 다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포용하심을 잊지 맙시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통일은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방법론은 많지만 크리스천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아들을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8-30절]

28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축하하는 잔치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아버지께 따집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떠났던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반대로 첫째 아들이 아버지 집 밖에 있습니다. 오늘 탕자의 이야기 마지막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 큰 잔치를 펼치는 잔치집으로 마음을 돌이켜서 들어가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온 형제가 있다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혹시 밖에 있다면 이제 같이 잔치집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음통일은 이 땅에 어그러지고 무너진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분단시대를 살아가면 북한 땅에 허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가 허물어지고 사람들의 인간적 본성이 어그러지고 모든 사회적 관계가 깨어진 곳이 아닙니까? 시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치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통일국가를 이루게 하는 근본적 힘입니다. 한국교회는 세상에 간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의 부르심이 복음통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삶 속으로

1)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렸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전의 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포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2) 주변에 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있습니까? 어떻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다름과 틀림의 관점으로 나눠봅시다.

3) 우리는 혹시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나누어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오늘 배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번 주간 동안 매일 한 번씩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들고 더 기도합니다.

01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됨을 잃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02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넓은 가슴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03

북한 땅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와 통일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소망을 끝까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통일의 잔치에 진정으로 기뻐 참여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4과 화해



오늘의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 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늘은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가사 해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The Love of God)’은 프레드릭 레만(Frederick. M. Lehman) 목사님께서 1917년 지은 곡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의 회복과 화해를 이루어 그 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사랑으로 품으며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 공과를 여는 질문

“이 십자가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라고 묻고 대답을 듣습니다. (추가로 어떠한 느낌이 드는지,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는지, 다른 십자가와 무엇이 다르게 다가오는지 묻고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나누어도 좋습니다.)

대답을 들은 후에 이 십자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만약,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분이 있다면 그 분을 통해 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에 대하여 설명을 듣습니다)



“십자가의 모습이 마치 두 사람이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 십자가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미국에 계신 김성환 목사님께서 만드신 십자가인데요.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모임을 통하여 우리를 품으신 그리스도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갈라지고 깨어진 한반도와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화해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본문 나누기

[고린도후서 5장 14-21절]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 묵상하기

- 1)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나누어봅시다(14,15절)
- 2)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17절)
- 3)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18절)

말씀속으로

한반도에 있었던 전쟁으로 갈라지고 깨어진 채 70년을 지낸 남과 북은 이제 서로 너무나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지금의 우리 사회를 살펴볼 때 세대 간에, 이념 간에, 지역 간에, 그리고 소득과 이익 간에 등의 상황과 이슈별로 대립, 갈등, 경쟁, 격차가 극도로 심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점차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이 땅에 온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의 변화에 대하여 이를 품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들을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마치 나와 같지 않다면 적대시만 하는 사회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한반도가 다시 하나 되어 서로를 품고 부둥켜안는 그날이 올 수 있을지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갈라지고 깨어진 채 대립, 갈등, 경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죄로 무너진 우리에게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로마서 5:8)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를 품으시고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시어 변함없고 분명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화목 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으로 ‘진정시키다’, ‘화해시키다’는 뜻의 ‘힐라스코마이’에서 파생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화해하게 하는 희생제물이란 의미입니다.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어 회복시켜 화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요한일서 4:15), 죄인 되었던 우리의 존재가 그 분 안에 거하는 존재로 변화합니다.

우리가 그 분 안에 거한다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17),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본문 15절에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 18-19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린도후서 5:18-19)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하는 이 복된 소식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과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부탁하시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당파와 시기, 질투로 인해 분열되고,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면하며 간청합니다.

어쩌면 이 땅의 지금의 모습과도 무척 흡사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의 사람들과 이 땅의 이주민들이 서로를 품고 용서하며 화해를 이루어 화목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본문 21절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임을 시작하며 함께 이야기 나누는 ‘화목의 십자가’를 만든 김성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갈등과 반목으로 일그러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친밀해야 할 관계가 분열되고, 나라와 민족이, 교회가, 가정이, 형제·자매가 서로 단절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평화의 희망이 있다면 예수님이 품으셨던 십자가의 마음뿐이라고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품으셨던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갈등과 반목으로 일그러진 한반도에서 화해의 삶을 이루게 되리라 믿습니다.

〈인도자 참고자료〉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타난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증보자로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며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평화와 화해를 맺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하여 생각해봅시다.



삶 속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주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경험한 은혜에 대하여 나누어봅시다.

소그룹에서 돌아가며 간단하게 나누도록 인도합니다. 인도자가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한반도와 자신의 삶의 영역과 관계 가운데 깨어지고 갈라져 화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영역, 관계 등)에 대하여 나누어봅시다.

소그룹에서 돌아가며 간단하게 나누도록 인도합니다. 진솔하게 나누되 서로 경청하며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은 보다 간단히 나누도록 인도합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졌을 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화해하는 방법에 대하여 나누어봅시다.

함께 기도하기

오늘 배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주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이번 주간 동안 매일 한 번씩 읽으면서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들고 더 기도합니다.

01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후 5:14),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이 땅의 주를 외면하는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이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02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고후 5:17,18)라고 하신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깨지고 갈라져 대립, 갈등, 반목하는 이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 화해케 하는 화목의 직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03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사 43:19-21)고 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깨지고 갈라지며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화해를 이루어 다시 하나 되게 하사 모든 이가 주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지필진 소개

1과 “예수 안에서 하나” (갈라디아서 3장 26-29절)

집필자 : 허은성 목사 (안산동산교회 북한선교담당 목사)

2과 “갈등을 넘어서 부흥으로” (사도행전 6:1~7절)

집필자 : 송혜연 목사 (하나로드림교회 담임)

3과 “하나님 아버지 마음” (누가복음 15:11-32)

집필자 : 이은성 목사 (필승교회 담임)

4과 “화해” (고린도후서 5:14-21)

집필자 : 황모세 선교사 (사단법인 네번째강문화연구원)



2023
북한회복을 위한
구역공과

 **숭실대학교**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82 2 828 7076~8 ccul@ssu.ac.kr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숭실대학교 참외관 404호



9 791197 820120
ISBN 979-11-978201-2-0